구원받음이 적용된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13절)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음이 적용된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구원받음이 적용된 기도'
오늘 말씀은 주기도의 마지막 강해입니다. 특히 10절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부터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을 일컫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으로는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과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세상의 가치들을 구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화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풀어보자면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양쪽에는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였으리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42~43절을 보면 한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은 1호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믿은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강도가 믿은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기다리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이 사건은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는 뜻깊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실 분으로 믿었고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낙원은 큰 무리 없이 천국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셨고,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강도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과 현실의 차이에 대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실들이 수없이 많지만 오직 내 마음과 합쳐진 사실만이 현실이 됩니다. 내 삶에 존재하는 많은 사실들 중에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많은 사실들 중에서 천국이 내 마음의 첫 번째 현실감이 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현실감에 대해 언급하기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현실감이 곧 구원입니다.
한편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현실감을 항상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천국이 내 마음에 현실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대한 경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실들이 내 마음의 현실감의 주인공이 되고자 쇄도해 들어옵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천국이 현실감을 잃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유지해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부분과 이후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구원을 받고 천국이 현실감으로 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에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름

을 붙잡음으로써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모셔 들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은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증거로써 천국의 현실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 다음 부분은 구원을 받은 내용이 삶에 적용될 때에 나타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강도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때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와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주셔서 당신의 나라가 내게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강도의 구원 사건에서 특징적인 점은 강도에게 구원 이후의 삶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도는 구원을 받았으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회가 없이 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에 이어지는 나머지 부분은 강도처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기도는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뒷부분의 기도가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 있고 혹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신앙 상태에 대한 다양한 합리적 의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구원받음의 결과가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기도 이외의 다른 기도를 한다면 구원받음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식하는 자들이나 중언부언하는 이방인과 같은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생활은 힘들고 재미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기도 또한 마땅히 구원받음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곧 천국이 내 마음에서 현실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변화산 사건 때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일시적이었지만 천국을 경험하였습니다.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의논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산 아래에서 꿈꾸었던 일을 전부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천국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음을 현실로 느끼게 된 것이고 이것이 천국 현실감의 내용입니다.

사실로써 존재하던 천국을 현실로 느끼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루고 싶은 일이 없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현실로써 뚜렷하게 느낀다면 적어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내용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여전히 세상에 두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현실감을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부분에서 적용하라고 살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 천국 현실감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삶의 존재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현실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정해놓으신 뜻이 있고 그 뜻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천국을 현실로 느끼는 한 더 좋은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결정된 뜻이 있습니다. 지구의 75억 인구가 있지만 내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좀 더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현실로 느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있기 때문이군요. 75억 인구 중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셨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천국의 현실감을 삶에 적용시킬 때에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표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지만 내용적으로는 결코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또 31~33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란 단순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양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몸을 가졌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의미를 살려서 풀어보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저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저의 몸을 살아 있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저를 통해 땅에서 이루어질 하늘의 뜻이 더 이상 없다

면 지금이라도 하늘로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나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기도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말기 암환자로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 현실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결정하신 뜻들이 다 이루어지고서야 생애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임종이 가까울 때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가족이 있는 남편과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다면 남편이자 아버지로써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내나 자녀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살아있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완전히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몸을 살려두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였던 것도 바로 이 간구와 일치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결정하신 뜻들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내 몸 하나뿐입니다. 막대한 자본금이나 인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부자로 만드시고자 한다면 가진 자본금이나 재산이 아니라 오직 몸뿐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출애굽 시키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세의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애굽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막대한 군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선적인 현실로 느끼는 모세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을 현실로 느끼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력이나 학력이나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을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언변이 뛰어나지 않음을 두고 주저하자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목동 다윗이 선민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되는 것이 하늘에서 결정한 뜻이었습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다윗의 몸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의 존재를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현실로 느낄 때에 목동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우선적

인 현실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집안도 별 볼일 없고 인간관계가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살아있는 몸 하나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서 주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 기도를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죄 사함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닌 조건부가 됩니다.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일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요새 기준으로 한다면 일조 원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더니 그 사람이 몇 백만 원 빚진 사람을 폭행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조건적인 죄 사함을 받았으니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천국이 내게 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해서 천국 현실감을 가졌다면 이미 죄 사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국 현실감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천국 현실감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손해의식과 피해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으니 원수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준의식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는 피해의식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현실로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손실이 피해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객관적인 손실이 없는 경우에도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저변에 손해의식과 피해의식과 기준의식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손해의식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다면 요셉을 총리 자리로 이끄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피해보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가룟 유다를 내쫓으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

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현실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피해의식이나 손해의식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피해의식과 손해의식과 기준의식을 가진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므리바에서 선민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삼일 길을 가게 되었는데 물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선민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은 이미 열 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여정이 삼일 간 지속되자 마음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천국이 첫 번째 현실감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사건과 사람들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곧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천국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돈 없는 것,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 등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현실은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며 다사다난한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음을 첫 번째 현실로 여기겠다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현실감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을 현실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감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에서 구원 받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섯 가지로 구원받음이 적용된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주기

도를 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설령 암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삶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결정된 뜻들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님으로써 시험에 빠져 악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붙잡음으로써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천국 현실감을 만사에 적용함으로써 복지의 주인공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